

“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”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

- 「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」 확정 -
- 근본적 소음원 관리, 주민 맞춤형 지원강화부터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까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「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(’26~’30)(이하 “제4차 중기계획”)을 마련했다.

※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

○ 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.

○ 이를 위해, 지방정부, 항공사, 공항공사,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(안)을 마련하였으며, 권역별 주민 공청회(’25.11.27~28, 서울·부산·제주권 총 3회)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.

□ 제4차 중기계획은 “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”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* 「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」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 등을 통해 확인 가능

① 근본적·입체적 소음원 관리 강화

- 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·새벽 등까지 확대하고,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,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.

- 또한,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*를 수립·고시하고,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·감독 체계도 강화한다.

* 현재 김포, 김해, 제주 3개 공항에서만 수립되어 있으며 인천, 울산, 여수로 확대

- 아울러,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* 개발을 추진하고,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,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.

* 예상되는 공항소음 수준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측가능성 향상 목표

② 공정하고 두터운 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

- 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.

-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, 냉방·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,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.

- 또한,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, 심야소음피해 측정·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.

③ 공항과 지역 상생형 소음관리체계 구축

- 토지·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,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.
- 아울러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,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,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.
- 마지막으로,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‘공항소음정책위원회’를 신설하고,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'공항소음 정책센터' 설치를 추진하며,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도 정례화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“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”고 하면서,

○ 특히, “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-지역-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공항정책관 공항운영과	책임자	과 장	박상민	(044-201-4347)
		담당자	서기관	공두영	(044-201-4344)
			주무관	김병근	(044-201-4345)

비전

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-지역의 상생성장과
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



기본
방향

- ◆ 예방적 소음관리 역량 강화
- ◆ 공항-지역 상생 및 주민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
- ◆ 공항소음 정책의 다각적 이행기반 구축

추진
과제

근본적·입체적
소음원 관리 강화

- ① 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한 소음부담금 체계 개편
- ② 항공기 운항 소음 관리체계 강화
- ③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고도화 추진

공정하고 두터운
주민 맞춤형
지원 강화

- ① 사업재원 지역별 배분 기준 조정
- ②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강화
- ③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의 지원제도 개선

공항-지역 상생형
소음관리체계 구축

- ① 매수제도 정비 및 매수자산 활용 활성화
- ②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 내실화
- ③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

소음
조사

'26~'27년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'28년 소음대책지역 신규 고시